

민주, '李 징역형'에 격앙된 반응 이어져

“정적 죽이기 정치판결”...일각 “탄핵 가속” 주장 친문계 의원들 입장문 내고 “사법 정의 무너졌다” 조국 “강력한 대권후보 생명 끊는 것, 온당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민주당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당내에선 무죄 또는 정치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 100만원 미만 벌금형 정도를 예상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예상과 달리 3심까지 확정될 경우 10년간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의원직 상실형이었다.

당장 이번 선고를 두고 민주당에선 '무리한 판결'이라는 주장과 함께,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표가 참석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에서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법원이)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 어쨌든 당 대표로서 흔들림없이 일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분노를 표출하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1심의 결과”라며 “정권교체를 위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도 대법원 최종심에서 살아 대통령이 되었다”며 “우리는 어제처럼, 오늘처럼 내일도 치열하게 김건희특검과 민주주의, 민생경제, 남북관계 개선 등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적었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정치적 위기에 놓인 때일수록 이 대표를 구심점으로



정치검찰 규탄하는 민주당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정치검찰 규탄과 사법정의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아 더욱 단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신정훈-민형배-권항엽-전진숙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 27명은 이날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를 선고받은 데 대해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대선 이후 검찰은 이 대표 죽이기에 골몰했다”며 “결론을 미리 세운 채

진술을 조작하고, 증거는 짜 맞추고, 주변인을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건희 무죄, 이재명 유죄”로 대표되는 검찰의 무도한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는 날이 올 것”이라며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이 대표와 민주당은 더욱 일치단결해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친문(친 문재인)계 의원들이 이 같은 입장문을 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각에선 이번 선고를 계기로 현 정권을 향한 비판적 여론을 응집해 ‘대통령 탄핵’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소속 한 의원은 “사법부가 김 여사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서는 가혹하다는 것을 국민이 봤을 것”이라며 “오늘의 판결을 통해서 더는 나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성향 다른 야당도 법원의 1심 선고를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말로 싸우는 것으로,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일부 허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해도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이자 2대 국회 1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진수 기자

민주 “李 리더십 견고”...물밑선 ‘비명계’ 시선

김동연·김부겸 행보 관심... 김경수 ‘방미’ 계획도 박용진 내년 활동 재개...86그룹·김두관도 관심

더불어민주당의 간판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으며 대권 가도에 비상이 걸리자 17일 비명(비이재명)계 잠룡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오히려 이번 재판으로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칠 수 있다는 의미가 강해지고 있다면서 “흔들림 없이 싸워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아킬레스건인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기 시작한 만큼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물밑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가장 주목받는 인사들은 이른바 ‘비명계 신(新) 3김’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다.

현직인 김동연 지사의 경우 정치 행보가 제일 두드러진다. 이달 초엔 독일 출장 중 현지에서 유학 중인 김경수 전 지사와 회동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지난 총선 이후 도정자문위원장에 전해철 전 의원을 위촉하는 등 낙선·낙천한 비명·친문(친문재인)계를 경기도에 두루 영입하기도 했다.

독일 유학 중인 김경수 전 지사는 내년 1월 말에서 2월 안팎에 귀국해 정치 행보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다음 달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정권 교체 이후의 한미 관계와 동북아 안보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한 달가량 더 머무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김부겸 전 총리는 미국과 캐나다를 3주 일정으로 방문, 정책 전문가들을 만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집권 후의 한국 경제 및 정세와 관련한 의견을 두루 경청하고 전남 귀국했다. 김 전 총리 측 인사는 “그간 해오던 대로 메시지도 내고 강연도 할 계획이지만, 이 대표의 과도한 양행으로 당이 혼란한 상황도 고려해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명계 모임은 고리로 한 잠룡들의 ‘공동 행보’ 내지 세력화 전망도 제기된다. 비명계 낙선자 중심 원의 모임 ‘초일회’는 잠룡들을 월례 모임에 차례로 초청해 강연을 연다. 이밖에 초일회 일원인 박용진 전 의원은 내년 초 유튜브 방송 및 전·현직 기초·광역의원 및 청년 정치인들과 ‘정치와 미래’ 포럼 발족 등을 통해 정치 활동을 재개한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와 경쟁한 김두관 전 의원이나 오랜 기간당의 주류로 활동한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그룹의 움직임도 관심거리다. /연합뉴스

민형배 발의, ‘사후 음주’ 처벌법 본회의 통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사진)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출 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후 다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 민 의원은 해당 의혹을 접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적 물의에 비판이 큰데, 처벌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대안법안으로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술타기 수법’과 같이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음주측정 방해 행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

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더불어 면허취소 및 운전면허결격제도 등을 적용했다.

민형배 의원은 “유명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법질서 교란행위가 발생했다”며 “법 통과로 사법 방해행위를 막고, 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사진이다. /연합뉴스

여야, 특활비·예비비·지역화폐 놓고 본격 대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증액·감액 심사에 돌입한다.

18일 시작되는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는 상임위별 예비 심사 결과와 토대로 진행된다. 17일까지 국·법·법제사법·보건복지·국토교통·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외교통일·산업통상

자립중소벤처기업 등 7개 상임위의 예비 심사가 끝났다. 상임위 곳곳에서 거대 야당의 예산안 의결 강행이 빈발한 가운데, 남은 상임위에서도 여야의 충돌이 예고돼 예결위 예산소위 심사는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

야당은 각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를 ‘권력기관 썩짓돈’으로 규정해 삭감

1순위에 올렸다. 지난 8일 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 등을 전액 삭감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의 ‘비상금’인 예비비는 예결소위 심사의 새로운 뇌관이다.

정부는 예비비를 14.3% 늘린 4조8천억원 규모로 편성했지만, 민주당은 지난 13일 기획재정부위원회 소위에서 절반을 삭감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김진수 기자

파크골프 2코스 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집

- 모집기간: 수시/매월 30명
- 교육접수: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매주 2회 이상) →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파크골프장 순회 실습 3회 이상 → 2차 실기시험 18홀 라운딩
- 접수계좌: 농협 351-1286-9685-63 (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010-9163-7897 / Tel. 062-369-0070

파크골프 무료교실 (취미반)

- 남녀노소누구나매주 12명 한정 모집
- 왕초보 ~ 골프장 실습(실내 연습장 완비)
- 기본사제·라운딩 실습(실내스크린골프 20개구장)
- 골프채·골프용품구매자각종 혜택부여
- ※ 본 연합회 용품 매장 방문 환영, 실내파크골프장(스크린) 운영

상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IPGF 국제파크골프연합회 / 파크골프용품판매전시장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사우리병원 입구,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 추선회관 방향)